

제 목	국 문	암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이용 경로에 관한 연구	
	영 문	Catchment Area and Pathway of Medical Care Seeking of Cancer Patient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영성*, 신영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영 문	Dep.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ollege. Korea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이영성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O) → 완료 예정 시기 : 95 년 12 월		

1. 연구 목적

현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에 의한 사망은 아직도 전체 사인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암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기초의학 및 임상외과학적 측면에서의 기술과 함께 의료관리적 측면에서의 기술이 포괄적으로 요구된다. 암 관리 기술의 포괄성에 비해 그 동안의 암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임상외과학적 연구나 기초외과학적 측면에서 발암기전이나 암 치료법, 신약개발 등에 주로 치중하여 왔으며 암 환자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의료기관의 선택에서 치료, 암 진료기관의 배치의 적절성 등 의료관리학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암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는 질병개념(암=죽음)과 질병 치료에 투입되는 의료자원의 강도나, 치료의 적절성이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단위의 포괄적 암관리체계의 수립은 제한적인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의료관리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의료자원의 수급과 균형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환자 흐름을 중심으로 한 진료권의 형성양상과 결정요인, 의료이용 경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자유방임형 의료제도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경향이 바로 의료이용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료이용 경로와 진료권의 규명은 향후 의료이용 예측 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암 관리를 위한 자원배치계획 수립에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단위의 포괄적 암 관리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암 관련 자원의 배치와 관련된 문제들로 암 환자들의 진료권과 의료이용 경로를 상세히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분석자료의 종류는 의료보험조합별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급여자료와 자격관리 자료이며 전국 의료보험조합(공무원, 교원, 직장, 지역)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급여자료의 조사기간은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자격관리 자료의 조사 시점은 1993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전산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암 환자의 추출과 이를 자격관리 화일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결하여 환자별 의료이용 실적을 추출하였다.

기술적 연구로는 분류변수의 성격에 따라 진료건수 혹은 실환자수, 진료비 등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환자의 성, 연령, 진료권, 진료권별 의료이용 실적에 근거한 유병율, 진단명 혹은 진단군별 분포, 의료기관의 규모별 진료형태별(입원, 외래) 분포 등이 포함될 것이다.

분석적 연구로는 우선 진료권 형성의 경우 중진료권별 자체충족률 수준과 이들 자체충족률의 결정요인을 다변량분석으로 규명한다. 둘째, 자체충족률을 포함하여 중진료권별 결정요인의 특성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중진료권을 다시 몇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셋째, 유형화된 중진료권 그룹별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경로의 특성을 규명한다. 이용경로 분석은 마르코프 모형을 이용하여 진료권간 이동, 의료기관 유형별 이동을 진료건수 혹은 진료비용의 전이확률로 제시한다. 넷째, 유형화된 중진료권 그룹의 전이확율을 함수로 제시하여 향후 의료기관 재배치(진료권 조정이나 암 센터 신설 등) 혹은 환자 흐름과 관련된 주요 정책개입(예: 의료전달 체계의 개편 등)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제시한다.